



[낙농경영] 英 스코틀랜드, 가축건강관리 모바일 앱 구축

- 실시간 가축 정보 공유로 질병 예방 및 이력추적 관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축건강관리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다.

최근 스코틀랜드 농업대학(SRUC)은 농가와 수의사가 실시간으로 가축건강 상태를 공유해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임과 동시에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고, 기존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해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을 출시해 가축건강계획 시스템(SAHPS)에 등록된 스코틀랜드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가 현장에 있는 동안 모든 데이터가 앱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가 사용가능한 공간에서 즉시 가축건강계획시스템과 이력추적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수의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육중인 가축의 치료 및 생산기록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되며 수의사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조기에 질병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앱 개발자는 “농가들에게는 가축의 건강만큼 시간도 중요함에 따라 이 앱을 통해 별도의 문서 작업 없이 실시간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가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3월 19일 >

[마케팅] 美, ‘낙농가 일상’ 담은 동영상 시리즈 제작·배포

- 낙농가들의 노력과 헌신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 도모



미국에서 낙농가의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시리즈가 제작되었다.

미국낙농가협회 북동부지사(ADANE)는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낙농가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첫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2주마다 오는 8월까지 공개 예정인 시리즈로 북동부지역 낙농가 6명을 통해 그들의 가족과 후계 육성 등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낙농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계획이다.

ADANE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즐겁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장투어 영상물이 제작 및 공유되며 큰 인기를 모은데 영감을 받아 이번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13일 처음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낙농가는 자신도 자녀를 키우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취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임을 상기시키면서 생계를 위해 젖소를 사육하며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DANE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요 구매 결정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전달함과 동시에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3월 1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